

MUSIC

의미있었던 두개의기획공연

이석렬 | 음악평론가

대학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을 위한 음반 및 영상 매체 제작은 좀더 활기를 띠 필요가 있다. 음악과 미술의 결합, 음악과 연극의 결합같이 여러 장르의 예술이 융합되곤 하는 이 시대에는 감상 매체를 만들고 보존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고품격의 문화 콘텐츠는 반드시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며 인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대학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유망, Prospects!〉과 〈민속적 소재를 사용한 한국가곡〉 필자가 올 봄에 관람했던 양악 공연 중에 두 개의 음악회는 나름대로 고무적인 인상을 남겼다. 이유는 그 음악회들이 음악 문화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회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문화 인프라 성숙이나 학문적 규명에도 기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것이다.

이 글에 소개하는 두 개의 음악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펼친 〈유망, Prospects!〉 공연과, 우리 가곡연구회의 〈민속적 소재를 사용한 한국가곡〉 공연이다. 두 공연 모두 기획된 취지를 보자면, 음악회와 음반을 통해 문화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그런 의도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음악인들에게 좋은 정보와 반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유망, Prospects!〉 공연 및 음반

우리나라에서 예술음악 교육을 담당하는 주된 교육기관은 음악대학과 음악원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 기관들에는 역량 있는 교육자들과 유능한 학생들이 소속돼 있다. 우리는 그들의 예술적 행위들을 여러 공연장에서 접할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음반이나 DVD 같은 감상매체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미디어 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음반이나 영상 매체가 갖는 비중이 막강하다.

지난 4월 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홀에서 펼쳐진 〈유망, Prospects!〉 공연은, 3월에 출시된 같은 제목의 음반 〈유망, Prospects!〉와 짝을 이루는 공연이었다. 공연 포스터와 팸플릿 역시 음반 자켓과 똑같은 모양이어서 이 공연이 음반의 기념 및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음반과 공연의 목적은 〈유망,



우리가곡연구회의 음반인 <한국의 근대 가곡1>

Prospects!>라는 제목에서 엿보이듯 학생들의 연주를 보다 많은 세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이 음반과 공연에 참여한 학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재학 중인 서민정, 윤성원(바이올린), 강승민(첼로), 김태형, 장성(피아노), 강은정(피아노반주) 등 모두 6인이다. 이들은 바로크 시대부터 근대의 라벨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해내고 있는데, 아마도 재학생들의 연주를 담아 이렇게 음반을 제작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획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음반에 연주를 담은 6인의 학생들은 모두가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여 국제적으로도 역량이 검증된 학생들이다. 그들의 신인 시절 연주를 음반에 기록해 학교의 문화 콘텐츠로 확보하고 기타 여러 방송국 등에서도 음향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음반이 학교 안의 레이블에서 기획되고 제작됐다는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황성호 교수)은 K-ARTs라는 레이블을 만들었다. 이 레이블이 만들어진 이유는 학교의 학

생 및 교수의 연주나 공연, 작품 등을 수록할 음반과 DVD를 제작, 보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육기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 브랜드를 목표로 하여 엄선된 작품들만을 제작, 유통하겠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결국 학교 안의 예술적 역량과 자산을 학교 밖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유망, Prospects!> 음반에서 엿보이는 또 다른 면모는 연주자들이 녹음장비가 있는 스튜디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녹음장비가 학교의 연주홀로 들어와 녹음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점은 아직까지 이런 방식으로 음반을 제작해 보지 않은 음악인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한국의 많은 음악가들은 자신들이 스튜디오로 직접 찾아가 녹음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 녹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녹음 장비의 부피와 무게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연주가 이루어지는 장소(그것이 학교나 교회, 음악당 등 어디든지)로 마이크와 하드디스크 등 몇 가지 장비만을 가져 오면 어디서든 음반을 만드는 녹음 작업이 가능한 현실이다.

필자가 이 음반의 녹음을 맡았던 남상욱 레코딩 프로듀서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음반시장의 악화로 인해 가능성만을 보고 젊은 연주자들에게 음반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음반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몇 명의 신예 연주자들을 제외하곤 대중들에게 자신의 연주를 음반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무척 적어졌습니다. 이런 음반 제작과정을 경험하면 연주자들은 자신들의 연주에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되고 연주곡들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연주가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번 음반 작업에 참여한 연주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레코딩 프로듀서의 이런 언급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학생들은 녹음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만들기’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현시대는 ‘라이브 연주’와 ‘녹음을 통한 연주’라는 두 개의 축을 똑같이 존중해야 하는 시대다. 이 부분에서 녹음의 달인이었던 지휘자 카라얀과 녹음을 거의 불신하다시피 했던 켈리비다케의 대립을 논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미디어의 중요성은 외면할 수도, 외면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번 공연과 음반 <유망, Prospects!>를 소재로 글의 전반부를 메운 이유는 이런 기획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대학 안의 예술적 자원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한국의 대학들은 주로 ‘예술가를 양성한다’라는 측면에만 심혈을 기울였으나 이제는 그와 함께 ‘예술가를 보여준다’ 혹은 ‘예술가를 전시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는 대학 구성원들의 예술적 역량이 사회에 보다 널리 번져나가는 미래를 지향해야 하겠다.

<민속적 소재를 사용한 한국가곡>

우리 음악계에서 한국 가곡을 연주하는 공연은 무척이나 많다. TV 속 <열린 음악회>에서도 한국 가곡은 자주 등장했으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펼쳐질 수 있는 유니버시티형 음악회에서든 가곡은 우선적으로 초대받는 장르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런 흐름을 타고 언제부터인가 가곡은 ‘혼한 음악’ 혹은 ‘머리 부분은 적고 가슴만 넓은 음악’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음악

인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베토벤의 소나타나 쇤베르크의 음계 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석과 연구를 하면서도 한국 가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체계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것이 그 원인의 하나였다. 몇몇 음악가들과 이론가들이 가곡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그런 양상이었다.

가슴만으로 접하는 가곡 연주회가 아닌, 체계적인 연구와 역사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는 가곡 연주회가 지난 5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우리가곡 연구회(회장 이병렬)의 이번 공연 <민속적 소재를 사용한 한국가곡>은 테마가 분명하고 한 장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가곡 연주회와 차별화된다.

그보다 앞서 4월 30일 모차르트홀에서 열렸던 우리가곡연구회의 2005년 세미나의 주제도 <민속적 소재를 사용한 한국가곡 연구>였다. 세미나와 연주회는 모두가 동일한 주제를 다루었고, 그것들은 한 세트를 이루어 입체적인 효과를 지향한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작곡가 진규영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진규영의 발표는 「한국가곡의 변천사」와 「민속적인 소재로 된 가곡」 두 주제로 나뉘어졌지만, 발표의 무게 중심은 역시 「민속적인 소재로 된 가곡」에 있었다. 그의 발표는 선율이나 음계, 리듬형태 등 민속적 소재를 응용한 맥락을 예기하고, 그것들이 서구에서 유입된 기법들과 융화되는 측면도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적인 고찰에서는 민속적인 소재로 된 가곡들이 194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1960년대의 소강상태를 거쳐, 1990년대에 ‘KBS FM 신작가곡 코너’ 프로를 통해 관심이 부활됐음을 논하고 있다. 세미나에서의 발표와 상응하여 이번 연주회에서는 윤이상 김순남 이영조 백병동 백경환 최병철 나운영 장일남 조두남 진규영 이권우 김동진 전인평 김희조

〈유망, Prospects!〉은 바로크 시대부터 근대의 라벨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해내고 있는데, 아마도 재학생들의 연주를 담아 이렇게 음반을 제작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기획일 것이다.

등 모두 14인의 창작가곡 19곡이 연주됐다.

윤이상의 〈그네〉로 시작된 이날 공연에서는 그간 한국의 작곡가들이 가곡 분야에서 사용한 다양한 음형들과 다성음악적 테크닉, 음계적 운용, 민요조 선율의 변형술 등이 펼쳐졌다. 판소리 흥보가를 응용한 전인평의 작품 〈화초장타령〉에서는 성악가 남의천과 피아노 반주자 이은영과의 흥겨운 대화가 펼쳐지기도 하여 서양의 가곡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공연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필자는 우리가곡연구회의 이번 공연이 음반으로도 제작됐으면 한다. 이유는 이렇게 주제 선정이나 체계적인 선별을 거친 가곡 음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곡 음반은 대중들의 기호에 맞게 음니버스식으로 수록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공연 내용이 음반으로도 제작된다면 진지한 가곡 애호가나 성악가 학생들 그리고 작곡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알차게 기획된 공연의 실황음반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

주제가 있는 음악회

이번 우리가곡연구회의 공연과 관련지어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음악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있는 '주제가 있는 음악회'에 관한 것이다. 특정한 악파나 특정한 국가의 음악 유산들을 모아 음악회를 여는 '주제가 있는 음악회'가 적지 않게 열리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그런 음악회들이 정말로 주제가 있는 음악회인지에 대해 동의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음악회에 주제가 부여됐다면 음악회에서 연주되는 곡들이 하나의 주제 하에서 묶이거나 서로 연

관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음악회는 모방이 아니라 창의적이어야 하는 만큼 일정 기간의 연구 작업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특정한 악파나 특정한 시대의 음악 유산들을 모아 프로그램을 구성한 음악회를 '주제가 있는 음악회'라고 보기 힘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번 우리가곡연구회의 〈민속적 소재를 사용한 한국가곡〉 연주회는 일정 기간의 연구와 준비를 거친 '주제가 있는 음악회'라고 볼 수 있겠다.

필자가 이번에 글을 쓴 두 개의 공연과 한 개의 음반은 그 취지나 기획 스타일이 다른 단체나 연주자들에 의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음악회들이 막이 내리면 세인들의 관심에서 잊혀지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음악회가 음악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함께 갖고 있다면 음악회의 막은 내려도 그 의미와 기여도는 남게 될 것이다.

대학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을 위한 음반 및 영상매체 제작은 좀더 활기를 떨 필요가 있다. 음악과 미술의 결합, 음악과 연극의 결합같이 여러 장르의 예술이 융합되곤 하는 이 시대에는 감상매체를 만들고 보존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고품격의 문화 콘텐츠는 반드시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며 인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대학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음악가들은 공연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기도 해야 한다. 자신의 공연이나 아이디어가 세인들에게 일정한 영향을 주고 다른 음악인들의 모델이 된다면 적든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알차고 의미 있는 기획으로 모두가 만족스런 공연 무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